

ASAN REPORT

강대국의 조건 한국인의 대미(對美) 인식

여론연구프로그램

2015년 4월



Asan Report

강대국의 조건
한국인의 대미(對美) 인식

여론연구프로그램 | 2015년 4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론연구프로그램

한국 사회에서 민주적 소통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정책입안자는 국내 여론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합니다. 또한 대중은 여론조사를 통해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프로그램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여론연구의 산실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 여론조사와 고급 통계분석 등을 통해 국내 여론변화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여론 수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저자

김 지 윤

김지윤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계량분석센터장 및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선거와 재정정책, 미국정치, 계량정치방법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표집틀 설정과 표본추출방법에 따른 정치성향 분석의 문제점: 임의번호걸기와 전화번호부 추출방법 비교〉 (조사연구, 2011),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분배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2010), 〈Political Judgment, Perceptions of Facts, and Partisan Effects〉 (*Electoral Studies*, 2010), 〈Public Spending, Public Deficits, and Government Coalitions〉 (*Political Studies*, 2010), 〈The Party System in Korea and Identity Politics〉 (래리 다이아몬드, 신기욱 역음, *New Challenges for Maturing Democracies in Korea and Taiwa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4)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미국 MIT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를 지냈다.

강 충 구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계량분석센터 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정책소통지수 개발”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이 지 형

이지형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 연구원이다. 미국 퍼시픽 포럼(Pacific Forum) CSIS Young Leader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관심분야는 동북아시아 안보, 미국 외교정책, 북한 문제, 경제제재이다.

목차

요약	09
들어가며	12
1. 한국인의 대미(對美) 인식	13
(1) 미국 호감도 및 한미관계 인식	13
(2) 미국 이미지	15
(3) 역사 속의 한국과 미국	17
2. G2와 하드파워(Hard Power)	19
(1) 미중관계 인식	20
(2) 강대국 평가 및 전망	21
(3) 강대국의 조건: 미국 대(對) 중국	23
3. 소프트파워(Soft Power) 경쟁	25
(1) 문화 영향력	25
(2) 오바마 대통령의 소프트파워	28
4. 한국인의 선택	30
(1) 국제사회 리더	30
(2) 한국의 협력 파트너	32
나가며	34
부록	36

그림

[그림 1]	미국 호감도	14
[그림 2]	한미관계 인식	15
[그림 3]	미국 이미지	16
[그림 4]	미국에 대한 의견	18
[그림 5]	미중관계 인식	20
[그림 6]	정치·경제부문 강대국 평가	21
[그림 7]	정치·경제부문 강대국 전망	22
[그림 8]	강대국의 조건	24
[그림 9]	문화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의견	26
[그림 10]	연령대별 문화 영향력 확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	27
[그림 11]	언어 경쟁력	28
[그림 12]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	29
[그림 13]	미중 리더십 평가	30
[그림 14]	한국의 협력 파트너	33

표

[표 1]	미중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평가	31
[표 2]	연령대 및 이념성향별 한국의 협력 파트너	34

요약

종전 후 약 70년간 패권국 지위를 유지해 온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론'에 시달렸다. 그 사이 중국은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을 위협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경기회복과 셰일가스 혁명 등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고속성장세가 주춤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미중(G2)의 국력 변화에 따라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은 동북아 질서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 사이 갈등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전망은 중국의 부상이나, 아니면 미국의 패권 유지냐로 요약된다. 중국의 부상을 강조하는 측은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상대할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다고 본다. 반대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된다는 데 무게를 둔 입장은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경제력뿐 아니라, 정치력을 갖추고 글로벌 가치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어느 국가를 패권국으로 여기고, 협력상대로 선택하는지 살펴봤다.

미국은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였다. 미국 호감도는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래 항상 중립('전혀 호감 없음' 0점, '매우 호감 있음' 10점)을 의미하는 5점대 이상을 기록했다. 주변국인 일본, 북한은 물론 최근 부쩍 가까워진 중국과 비교해도 미국에 대한 호감은 뚜렷했다. 또 한중관계를 협력적인 것으로 인식한 한국인은 50~60%대였는데, 한미관계를 그렇게 본 한국인은 70~80%대로 더 많았다. 그만큼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깊었다.

한국인은 '미국' 하면,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체제(28.6%), 군사력(26.7%), 민주주의 정치(20.6%)를 떠올렸다.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역사 속에 비친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61.4%의 한국인은 남북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치·경제에 미친 미국의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63.2%는 미국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장애물이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81.5%는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다고 봤다. 한국과 미국이 이해를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44.5%는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다(이해관계 같다: 55.5%)고 생각했다. 이는 한국인의 실리적 판단을 보여준다.

현 시점의 미중 패권대결에서 한국인은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정치, 경제에서 미국을 강대국으로 본 비율은 올해 각각 84.6%, 63.6%로 다수였고, 중국을 꼽은 비율은 정치 4.9%, 경제 29.9%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인은 향후 중국이 경제에서 미국을 제치고, 정치에서 미국과 비슷한 위치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향후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클 나라로 중국 70.5%, 미국 20.2%를 꼽았다. 정치는 미국 47.6%, 중국 39.5%였다.

미국과 중국이 왜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한국인은 각각에 대해 다른 이유를 꼽았다. 미국에 대해선 전통적 요인인 경제·군사력(‘경제규모’+ ‘국방예산’)을 꼽은 비율이 53.0%로 가장 높았고, 과학기술과 문화(24.5%)가 그 다음이었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에는 잠재 성장요인으로 볼 수 있는 인구 및 영토(‘세계 최대의 인구’+ ‘거대한 대륙의 국토’)라고 한 비율이 52.2%로 가장 높았다. 경제·군사력(‘경제규모’+ ‘국방예산’)은 37.0%로 그 다음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하드파워 경쟁이 치열했지만, 소프트파워(Soft Power)에서는 미국의 우위가 분명했다. 먼저 한국인은 중국 문화(57.2%)보다 미국 문화(68.9%)의 영향력 확대에 더 긍정적이었다. 특히, 20대(77.4%)가 긍정적이었다(60세 이상: 76.2%). 이러한 경향은 언어 경쟁력 면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최근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66.7%의 한국인은 중국어보다 영어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국어를 선택한 비율은 27.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지지율과 상관없이 한국에서는 미국의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소프트파워의 근원이었다. 국가수장에 대한 호감도 조사(‘전혀 호감 없음’ 0점, ‘매우 호감 있음’ 10점)를 시작한 2013년 이래 오바마 대통령의 호감도는 6점대 이상을 유지했고 조사대상 중 항상 수위를 차지했다. 최근 한중관계 개선에 힘입어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과 비교해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뚜렷했다. 2015년 3월 호감도는 오바마 6.21점, 시진핑 5.24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는 미국 호감도(2015년 3월: 5.93점)와 비교해도 높았다.

소프트파워에서 우위를 점한 미국은 국제사회 리더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수의 한국인(72.4%)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 역할을 긍정적으로 봤다.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본 한국인이 2013년 29.4%에서 2015년 52.1%로 늘었지만 미국에 미치지 못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수의 한국인(58.7%)은 미중 대결구도가 지속되면 미국과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국을 택한 비율은 30.5%였다.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미국의 건재를 믿었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2000년대 초 반미정서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적이 있지만 최근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젊은 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젊은 층은 중국의 부상을 직접 목격하고 있음에도 중국 보다 미국의 리더십을 긍정적(20대: 79.9%, 30대: 72.8%)으로 평가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 파트너에 대해 물었을 때에도 20대는 74.8%가 중국 대신 미국이라고 답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영어와 중국어 중 더 중요한 언어를 물었을 때에도 20대는 75.5%가 영어(중국어: 19.9%)라고 답했다.

최근 동북아 내 미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부상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리더십이 강력한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봤다. 많은 한국인은 국제사회에서의 정치력과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아직도 중국 보다 앞선다고 생각했다. 과거에 비해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지만 한국인에게 미국은 아직 충분히 매력적인 국가였다.

강대국의 조건: 한국인의 대미(對美) 인식

들어가며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줄곧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종전 후 냉전 시기 동안 미국은 소련과 양극체제를 형성했지만, 미국의 경제·군사력은 소련을 압도했다. 냉전이 끝난 뒤에도 미국은 스스로를 '없어서는 안될 국가(indispensable nation)'로 일컬으며,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위기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중국의 도전이 거세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중국은 2010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고, 지난해에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10조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국가로 발돋움한 것이다. 또 중국은 국제기구에 적극 가입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한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질서 변화에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정책'을 재확인하고,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을 밝히면서 G2의 대결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중 패권대결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는 미국 쇠퇴론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경제발전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여온 것과 달리, 미국은 경제침체로 국방예산을 감축하며 그 지위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면서 더 이상 '중국의 부상'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미중 패권다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중국이 미국과 같은 패권국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의 부상에 무게를 둔 것이다. 경제에서는 성장

세가 다소 꺾였음에도 중국의 잠재력을 낙관하는 평가가 많았다. 군사력은 현재 미중 간 격차가 크지만, 중국이 매년 국방비를 대폭 늘리면서 그 격차를 좁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1,294억 달러로 미국(약 5,81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쇠퇴가 상대적 영향력 감소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며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의문 부호가 붙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요동치고 있는 동북아 내 미중 패권대결을 한국인의 관점에서 풀었다. 미국, 미중경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한국인이 생각하는 강대국의 조건에 대해 살펴봤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은 중국의 급부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여전히 패권국으로 봤다. 미중 대결에서는 현재까지 미국이 중국보다 정치, 경제 모두에서 앞서고 있다고 봤다. 향후 경제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정치에서는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만 미국이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처럼 한국인이 미중경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미국의 정치력과 소프트파워(Soft Power) 때문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국제사회 리더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1. 한국인의 대미(對美) 인식

(1) 미국 호감도 및 한미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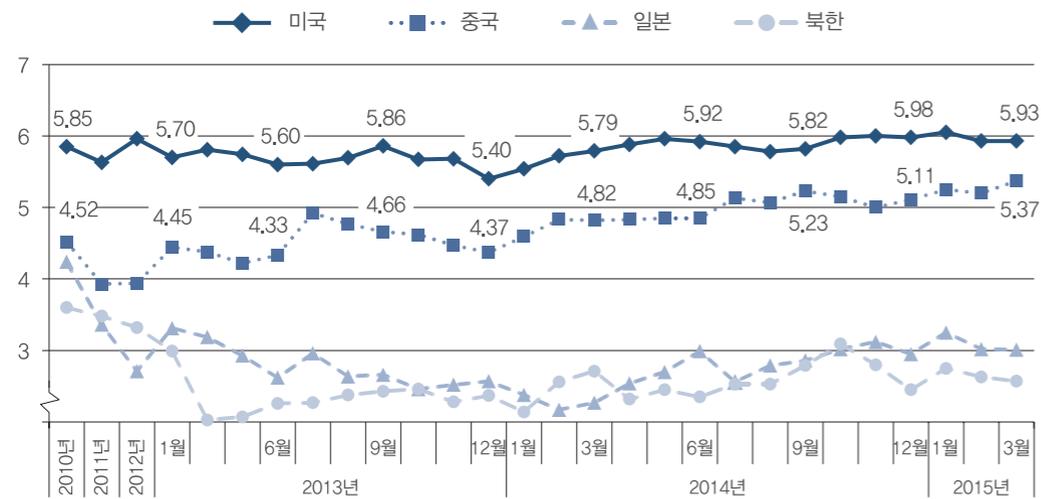
한국인에게 미국은 영원한 우방, 혈맹, 주한미군, 영화나 팝 음악 등으로 친숙하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인은 주변국 중 미국에 가장 큰 호감을 갖고 있었다. 한미 양국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일시적으로 호감도가 소폭 하락하기도 했지만, 호감도 최저치는 5.40점으로 여전히 높았다.¹ 최저치(2013년 12월)가 중립을 의미하는 5점대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선호는 주변국

1. 국가 호감도는 응답자에게 미국, 중국, 일본, 북한에 대한 호감도를 '전혀 호감 없음' 0점에서 '매우 호감 있음' 10점으로 평가하게 한 결과이다.

인 일본이나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가 부쩍 가까워지면서 중국 호감도 역시 급상승하고 있다. 중국 호감도는 올해 3월 5.37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 당시보다 높은 수치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결끄러웠던 시기와 비교하면, 중국 호감도 상승은 괄목할 만 하다. 그럼에도, 중국 호감도는 미국에 근접하지 못했다. 중국 호감도 최고치인 5.37점(2015년 3월)은 미국 호감도 최저치 보다 낮았다. 중국 호감도가 불과 몇 년 사이 양국간 관계가 개선되며 급격하게 상승한 것에 비해, 미국 호감도는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² 향후 한중관계가 더 강화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한국인의 미국 호감도가 높다는 증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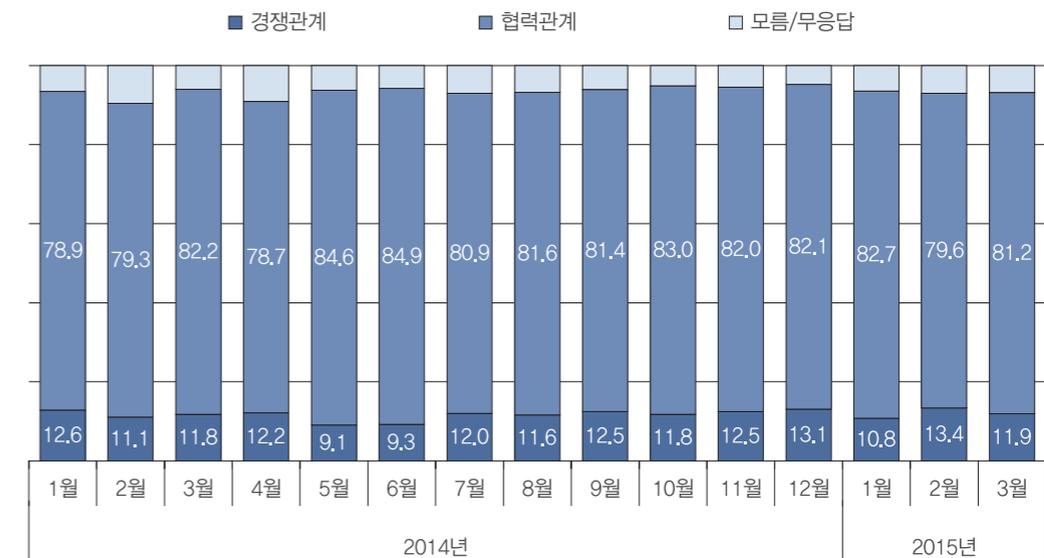
[그림 1] 미국 호감도³ (단위: 11점 척도)



2. 아산정책연구원이 국가 호감도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래 미국 호감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반면에 중국 호감도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이후 상승세가 뚜렷하다.
3. 아산 폴(조사기간: 2013년 1월~2015년 3월).

미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는 긍정적인 한미관계 인식으로 이어졌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경쟁(competitive), 협력(cooperative)으로 평가하게 한 결과, 대다수의 한국인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를 협력으로 평가했다.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줄곧 70~80%의 한국인은 한미관계를 협력으로 바라봤다. 경쟁으로 본 시각은 10%내외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14년 11월에도 12.5%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큰 갈등 없이 지속되고 있는 한미관계도 양국을 협력관계로 인식하게 한 이유로 볼 수 있다.⁴

[그림 2] 한미관계 인식⁵ (단위: %)



(2) 미국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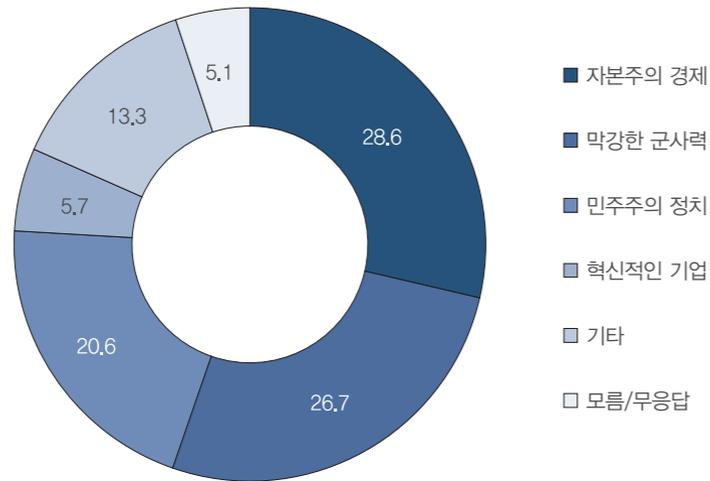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4. 최근 개선된 한중관계를 반영하듯 한국인의 긍정적인 대중(對中) 인식도 뚜렷했다([부록 그림 1] 참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를 협력으로 본 한국인은 50~60%대(최소 47.5%, 최고 64.1%)였다. 물론 한미관계를 협력으로 본 비율에 비해 낮았지만, 한국인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5. 아산 폴(조사기간: 2013년 1월~2015년 3월).

행사해 온 국가다. 친숙하고 우호적인 정서와 연관되는 미국이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기 위해 미국이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는지 물었다.

한국인의 28.6%는 ‘미국’ 하면, 자유시장이나 무한 경쟁 등 자본주의 경제가 떠오른다고 답했다.⁶ 다음으로 전쟁이나 한미동맹 등과 같은 안보차원 이미지를 떠올리는 비율이 26.7%로 비슷했다. 이는 미국이 군사대국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자국의 군인을 파견하며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라고 답한 한국인도 20.6%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미국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우방국으로 경제, 안보, 정치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국인은 ‘미국’ 하면 주로 자본주의 경제, 막강한 군사력, 민주주의 정치 등을 떠올렸다.

[그림 3] 미국 이미지⁷ (단위: %)



6. 아산 폴(조사기간: 2015년 3월 11~12일).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미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1)자본주의 경제, (2)막강한 군사력, (3)민주주의 정치체제, (4)혁신적인 기업, (5)영화, 팝 등 대중문화, (6)유명인사 및 관광지, (7)기타로 답하게 한 결과였다. 위 질문에 제시한 응답지는 2014년 아산정책연구원이 동일한 문항에 대한 개방형(open)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구성한 것이다.

7. 아산 폴(조사기간: 2015년 3월 11~12일). [그림 3]에서 기타는 ‘(5)영화, 팝 등 대중문화, (6)유명인사 및 관광지, (7)기타’를 합한 것이다.

반면에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혁신적 기업(5.7%), 영화나 팝 음악 등 대중문화(5.2%)를 떠올리는 한국인도 일부 있었다. 경제, 안보, 정치뿐 아니라, 사회문화부문에 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하게 하는 결과다.

(3) 역사 속의 한국과 미국

한국인의 90% 이상이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⁸고 했지만, 양국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과 미국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서 겪어왔다. 많은 한국인은 남북분단이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이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경제원조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민주화 시기를 경험한 한국인에게 미국은 독재정권을 비호한 패권국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미(反美)면 어쩌냐’라고 했던 발언은 복잡하게 얽힌 양국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역사를 통해 바라본 미국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미국 호감도나 한미관계 인식이 모두 긍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긍정·부정적 시각이 섞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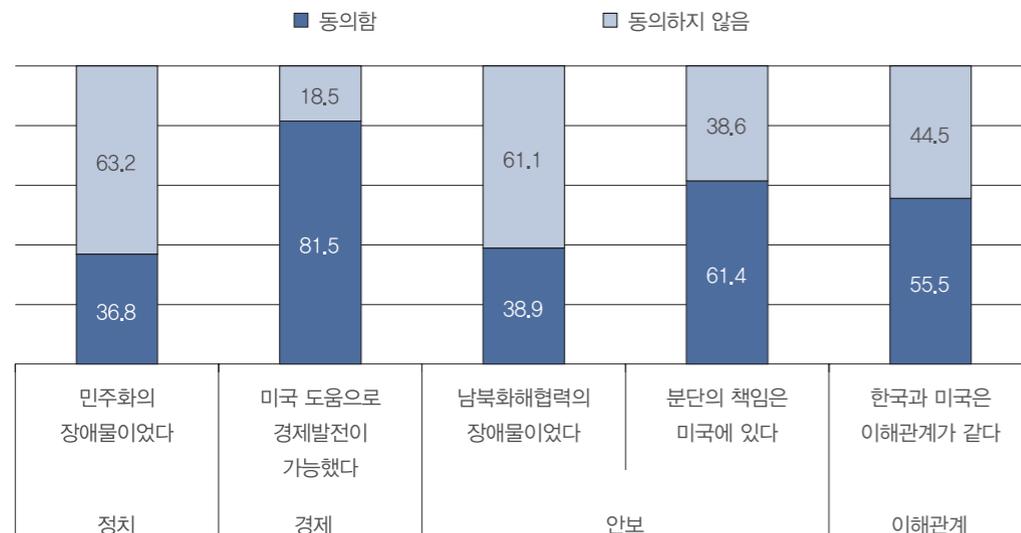
먼저 ‘미국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장애물이었다’에 동의한 비율은 36.8%로 동의하지 않는 63.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군사독재 당시 미국이 한국의 독재 정권을 비호했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해 민주화에 장애물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80년대 민주화를 직접 경험한 40대(44.0%)에서 미국이 민주화의 장애물이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반면, 전통적으로 미국에 호의적이었던 60세 이상은 무려 72.6%가 동의하지 않았다(동의: 27.4%). 20대도 65.0%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동의: 35.0%). 미국이 경제에 미친 영향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이 가능했다’고 답한 비율은 81.5%로 조사항목 중 가장 높은 동의를 받았다. 반대로 미국의 역할을 부정한 비율은 18.5%로 낮았다. 이 경향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동일했다.

8. 최강·김지윤·강충구·이의철·칼 프리드호프, 2014. “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 한미관계와 동북아 내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아산리포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이 남북 화해·협력의 장애물이었다’는 주장에는 61.1%의 한국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한 비율은 38.9%에 그쳤다. 여전히 60세 이상(동의 안 함 71.4%)은 미국에 호의적 태도를 보였고, 가장 부정적인 연령대는 40대(55.0%)였다. 진보(53.0%)와 보수(70.6%)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⁹ 진보성향 한국인은 보수에 비해 미국이 남북의 화해·협력에 방해가 되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었다. 반면, ‘남북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에는 전체 응답자 중 61.4%가 동의했다(동의 안 함 38.6%). 한국인은 미국이 남북화해협력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남북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해관계 공유에 대한 의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됐다. 특정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같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의견(55.5%)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44.5%)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한국인은 대체로 미국에 호

[그림 4] 미국에 대한 의견¹⁰ (단위: %)



9. 여기서 괄호 안의 수치는 ‘동의 안 함’을 선택한 비율(%)이다.

10. 2014년 아산연례조사(조사기간: 2014년 9월 1~17일).

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양국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의외로 많았다. 이는 한국인이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실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 G2와 하드파워(Hard Power)¹¹

금융위기 이후 미국 내 경제상황과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패권 약화에 대한 관측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동지역 분쟁,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등에 미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패권 약화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늘어난 국가 부채도 문제다. 2015년 3월말 미국의 국가부채는 18조 1,600억 달러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인 약 17조 6,100억 달러보다 많다.¹²

중국이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부딪치며 패권국 지위를 위협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다. 세계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자국 군인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파견하고 있는 군사대국이다. 미국의 쇠퇴를 상대적 약화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냉전시기를 지나며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국의 힘이 최근 약화되었을 뿐, 이민자 수용정책이나 셰일가스 혁명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앞으로도 상당한 힘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연구개발(R&D) 분야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 등도 미국 쇠퇴론을 반박하는 근거다.¹³ 그러나 어찌됐든 ‘미국의 쇠퇴’, ‘중국의 부상’ 등의 논란은 동북아 정세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한국인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국인의 시각에서 미중대결을 풀어봤다.

11. 강충구. 2014. “한국인의 미·중 인식: 중국이 미래 경제 이끌고, 정치도 미국과 접전”, 2014년 12월 30일자. 아산정책연구원. 한국인의 미·중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는 한국인의 G2(미·중) 인식 변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리했다.

12. 미국 국가부채 시계(US Debt Clock). <http://www.usdebtclock.org/> (검색일: 2015년 3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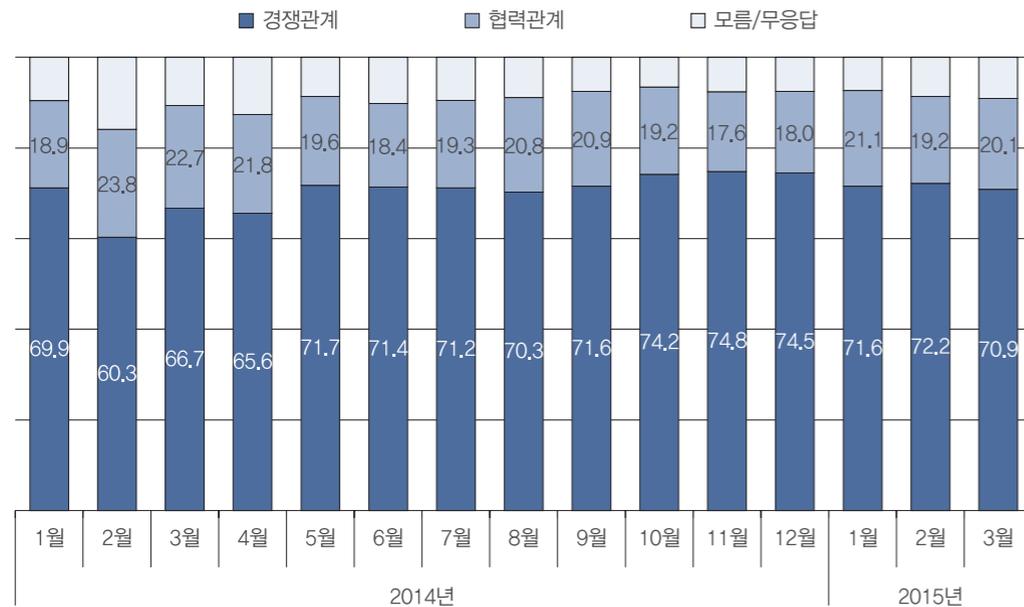
13. 데일리 한국. 2014. “조지프 나이 ‘중국의 부상, 결코 미국에 위협 안돼’”, 2014년 12월 10일자.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412/dh20141210190939137430.htm> (검색일: 2015년 3월 17일).

(1) 미중관계 인식

중국은 부쩍 성장한 경제력으로 국방비를 매년 10% 이상씩 증액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재정부담으로 국방비 지출을 줄이는 것과 맞물리면서 양국간 묘한 긴장관계를 형성시켜왔다.¹⁴ 경제·군사력이 글로벌 영향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미중대결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간 대결은 한국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헤게모니(hegemony)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는 만큼 약 70%이상의 한국인이 미중관계

[그림 5] 미중관계 인식¹⁵ (단위: %)



14.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2016년부터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퀘스터를 폐지하고,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최강, 2015. '미국판' 경제·군사 병진 정책. 팩스 아메리카나 3.0, 145~158.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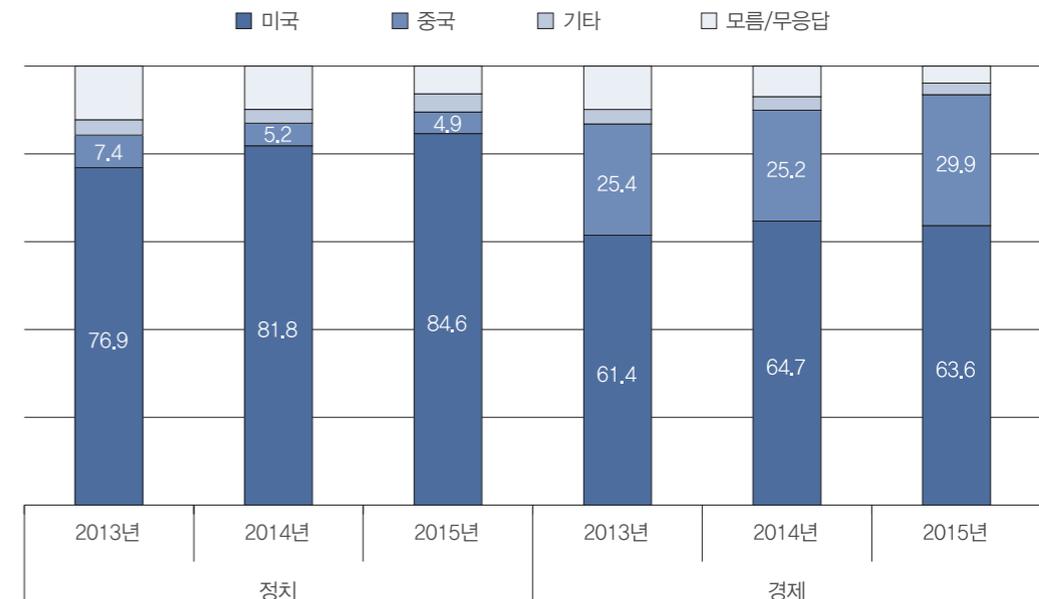
15. 아산 폴(조사기간: 2013년 1월~2015년 3월).

를 '경쟁(競爭)'으로 인식했다. 2013년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 미국과 중국이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양국을 협력관계로 보는 비율이 40%까지 늘었지만, 그 외에는 경쟁관계로 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2) 강대국 평가 및 전망

그렇다면, 한국인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정치, 경제에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를 답하게 했다.¹⁶ 2013년부터의 조사결과를 보면, 정치와 경제부문 모두에서 미국이라고 한 비율이 중국보다 훨씬 높았다. 정치, 경제력 모두에서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여론의 인식은 이와 달랐다.

[그림 6] 정치·경제부문 강대국 평가¹⁷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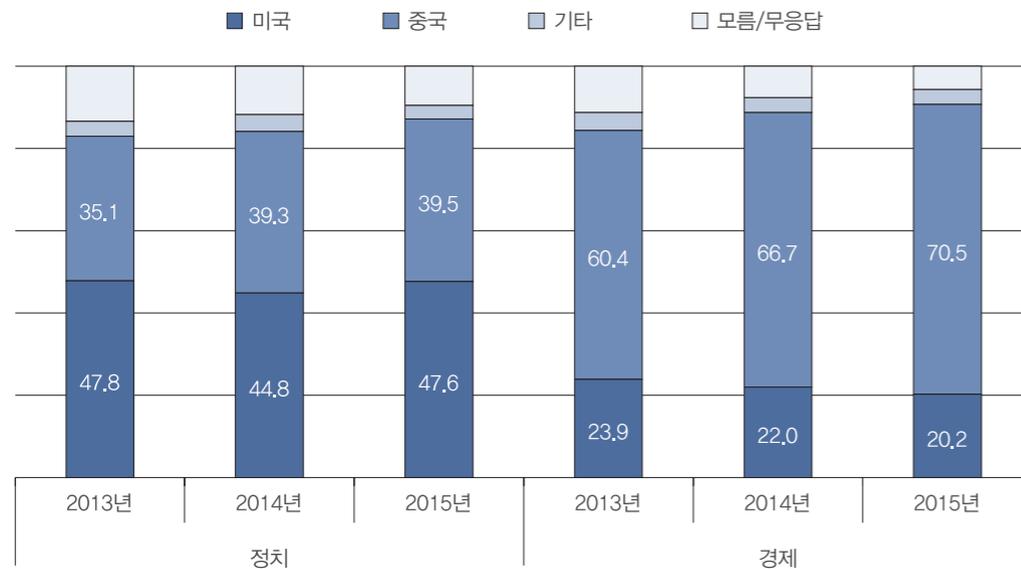
16. 이 문항은 응답지를 제시하지 않은 개방형 문항(open question)이었다.

17. 아산 폴(조사기간: 2015년 3월 11~12일).

정치의 경우, 미국을 강대국으로 꼽은 비율이 2013년 76.9%, 2014년 81.8%, 2015년 84.6%로 소폭이지만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그림 6] 참조). 또 경제에서도 미국을 꼽은 비율은 2013년 61.4%, 2014년 64.7%, 2015년 63.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본 비율은 2013년 25.4%에서 올해 29.9%로 5%가량만 상승했다.

정치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로 미국이 아닌 중국을 꼽은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올해에는 4.9%만 중국이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답했다. 미국을 정치 패권국으로 보는 시각은 질어졌고, 중국은 오히려 감소했다.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 상승을 무시할 수 없지만, 많은 한국인은 여전히 미국을 경제 대국으로 봤다.

[그림 7] 정치·경제부문 강대국 전망¹⁸ (단위: %)



그러나 향후 정치,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를 꼽게 했을 때에는 결과가

달랐다([그림 7] 참조).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제에서는 중국이 최강국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뚜렷했다. 2013년 한국인은 60.4%가 중국을 경제 패권국이 될 것으로 봤고, 이는 올해 70.5%까지 늘었다. 현재 중국이 경제 패권국이라고 답한 비율이 30%에 불과했지만, 미래에는 중국이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정치력은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미국과 중국을 향후 정치 패권국으로 본 비율은 각각 47.8%, 35.1%로 12.7%의 차이가 났는데, 2015년에는 미국 47.6%, 중국 39.5%로 그 격차가 8.1%로 줄었다. 한국인은 그만큼 중국이 정치력에서 미국과 상대할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치력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았다.

(3) 강대국의 조건: 미국 대(對) 중국

미국과 중국 모두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어떤 이유로 미중 양국을 강대국으로 생각했을까? 같은 강대국이지만, 한국인이 미국과 중국을 강대국으로 본 이유는 달랐다.

미국의 경우, 강력한 경제력(세계 1위의 경제규모) 때문에 강대국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35.5%나 되었다. 연구개발(R&D) 투자나 하이테크 산업 등 과학기술이라고 답한 비율은 21.1%로 두 번째였고, 세계 1위의 국방예산을 꼽은 비율은 17.5%로 세 번째였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인적자원 11.2%, 자원이 풍부한 국토 6.3%,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3.4%의 순이었다. 반면에 중국이 강대국인 이유로는 세계 최대의 인구가 37.8%, 세계 2위의 경제규모가 31.0%로 다수를 차지했다. 거대한 국토를 꼽은 비율은 14.4%로 그 다음이었다. 세계 2위의 국방예산을 꼽은 비율은 6.0%였고, 과학기술이나 전통 문화·역사라고 한 비율은 각각 3.5%, 3.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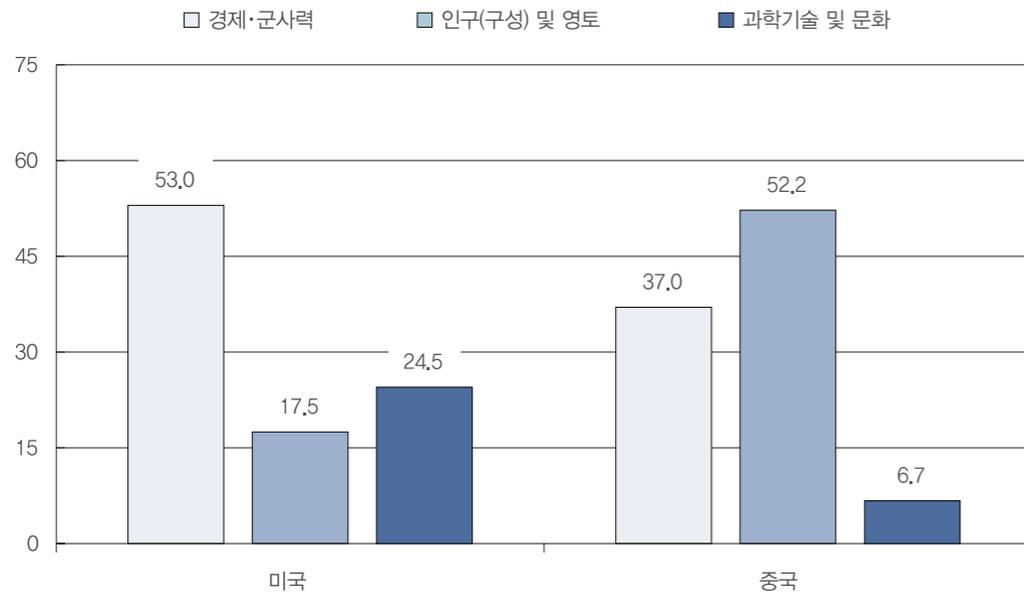
미국이 최근 국방비 지출을 줄였지만, 절반이 넘는 한국인(53.0%)은 전통요인인 경제·군사력(경제규모+국방예산)을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로 봤다([그림 8] 참조).¹⁹ 동일한 근거로 중국을 강대국으로 본 응답자는 37.0%로 이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 미국의 경제규모나 군사력이 현재까지는 중국을 앞서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중

18. 아산 폴(조사기간: 2015년 3월 11~12일).

국을 강대국으로 본 이유는 세계 최대의 인구(37.8%)와 거대한 대륙의 국토(14.4%)로 잠재적 성장요인(52.2%)이었다. 이는 왜 한국인이 향후 중국이 미국에 맞설만한 강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한국인은 미국이 현재 경제·군사력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정치·경제에서 패권국으로 봤다. 그러나 향후 세계 최대의 인구, 거대한 대륙의 영토를 갖고 있는 중국이 성장을 거듭하면, 미국의 지위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림 8] 강대국의 조건²⁰ (단위: %)



19. 문항의 응답지는 미국, 중국에 맞춰 구체적인 예시를 함께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을 강대국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묻은 문항의 응답지는 다음과 같았다. 미국은 (1)제1의 경제규모, (2)제1의 국방예산, (3) 다양한 인적 구성, (4)자원이 풍부한 국토, (5)과학기술(R&D 및 하이테크 산업), (6)대중문화 영향력, 중국은 (1)제2의 경제규모, (2)제2의 국방예산, (3)세계 최대인구, (4)거대한 국토, (5)과학기술(유인 우주선, 항공모함), (6)전통문화와 역사였다. 미국과 중국을 강대국으로 본 이유를 비교하기 위해 (1)+(2)= 경제·군사력, (3)+(4)= 인구(구성) 및 영토, (5)+(6)= 과학기술 및 문화로 재코딩하여 분석했다.

20. 아산 폴(조사기간: 2015년 3월 11~12일).

3. 소프트파워(Soft Power) 경쟁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인은 현재 미국이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고 봤다. 중국이 미국에 이어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미국을 대신해 국제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리더가 될 수 있을지는 다른 이야기다. 정치·경제력이 리더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지만, 국제사회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타 국가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다른 요인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의 위치와 국제사회 리더십을 유지하는 이유는 소프트파워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인은 미국의 소프트파워(연성권력, 軟性權力)를 미국 문화의 영향력, 오바마 대통령 등에서 실감하고 있었다.

(1) 문화 영향력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경제,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와 대비되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는 문화, 예술, 과학기술, 정책 등에서 한 국가의 영향력을 의미한다.²¹ 소프트파워는 국가간 권력관계에서 한 국가가 원하는 바를 얻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일종의 ‘매력(attract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인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인정하는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소프트파워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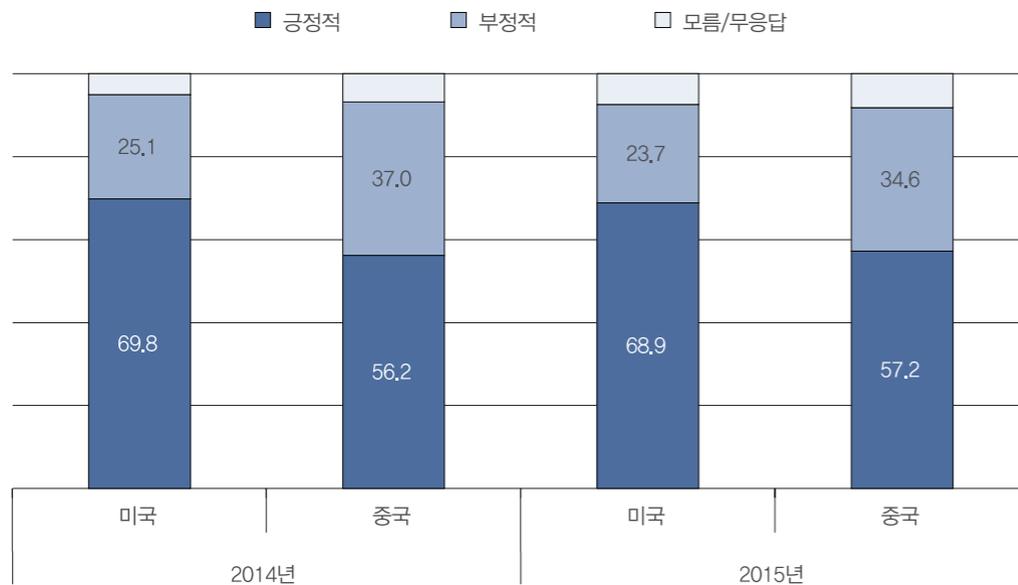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은 소프트파워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과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중 소프트파워 대결에서는 미국이 우위에 있었다. 미국 문화의 영향력 확장을 긍정적으로 본 한국인은 올해 68.9%로 중국(57.2%) 보다 높았다. 미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미국과 중국 문화 영향력 확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는 변화가

21. Nye, J. 2004. Soft Power and American Foreign Polic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9(2), 255-270.

없었다. 소프트웨어가 단기간 집중적 투자에 의해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또 중국에게는 자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환경오염, 인권 문제, 해외에서 제멋대로인 요우커(游客) 등도 골칫거리다.²² 반면에 개방적 문화, 대중 문화(영화, 팝 음악 등)의 영향력, 연구개발(R&D) 역량 및 투자규모, 세계의 인재를 모으려는 대학 등은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실감하게 한다.

[그림 9] 문화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의견²³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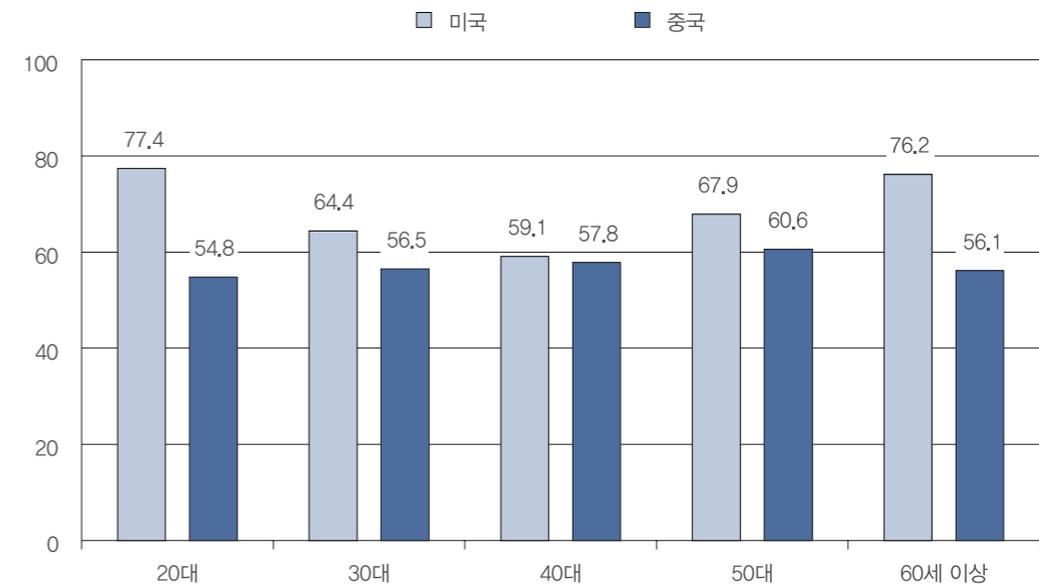


문화 영향력 확대에 대한 평가는 연령대별로 달랐다. 미국 문화의 확대에는 20대(77.4%)가 가장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60세 이상(76.2%)과 비슷했다. 안보관의 보수화, 빈번한 미국 문화 노출, 성공적인 미국의 공공외교 등이 젊은 층을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40대(긍정: 59.1%)는 미국 문화의 영향력 확대에 가장 부

22. 김지윤·강충구·이의철·칼 프리드호프, 2014.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미래: 경쟁과 협력 사이”, 아산리포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저자들은 이미 중국의 취약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23. 아산 폴(조사기간: 2014년 5월 7~9일, 2015년 3월 11~12일).

정적이었다. 이 결과는 중국 문화 확대에 대한 태도와 비교하면 더 극적이다. 한국인은 비교적 미중(美中) 문화의 영향력 확대에 뚜렷한 태도 차이를 보였으나, 40대는 달랐다. 40대는 미국과 중국 문화의 영향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본 비율이 각각 59.1%, 57.8%로 비슷했다. 40대가 민주화 시기에 젊은 시절을 보냈고, 당시 미국이 권위주의 정권을 비호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해가 된다.²⁴

[그림 10] 연령대별 문화 영향력 확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²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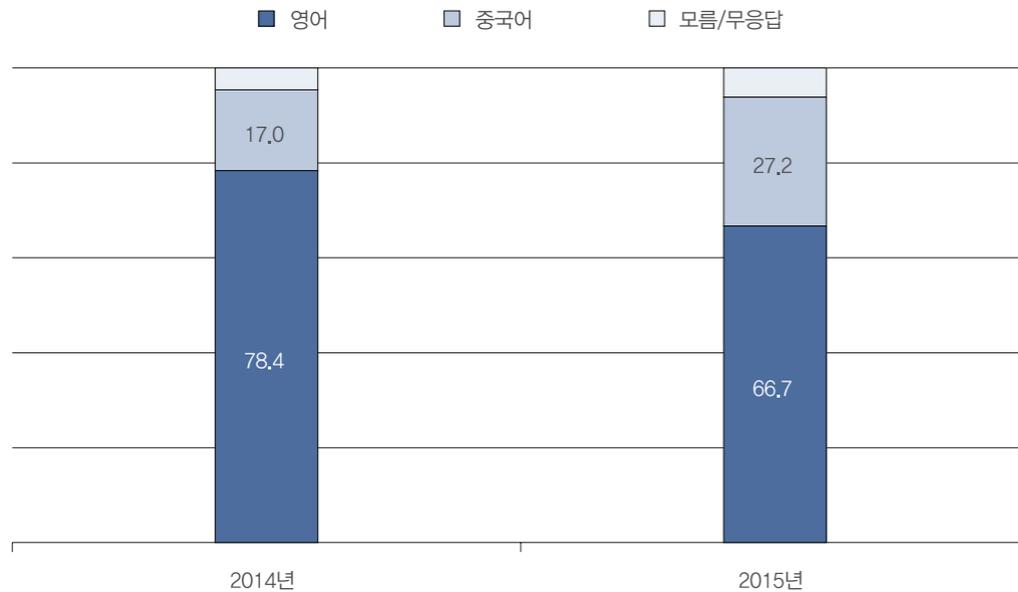


문화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의견에서 드러난 한국인의 미국 문화 선호는 언어의 중요성을 평가하게 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영어와 중국어 중 무엇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 물었을 때, 한국인은 영어가 중국어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영어가 중요하다고 답한

24. 앞서 살펴본 다른 조사결과와 종합하면 40대는 북한에 가장 관용적 태도를 보였고, 미국에는 가장 비판적이었다. 여기서는 40대의 이러한 특성이 중국 문화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드러난 것이다.
25. 아산 폴(조사기간: 2015년 3월 11~12일).

한국인은 올해 66.7%로 중국어를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27.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영어를 선택한 비율이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한국인은 여전히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이 경향은 20대에서 두드러졌다. 중국어보다 영어가 중요하다고 한 비율은 20대에서 75.5%로 가장 높았다. 중국의 부상이 최근 부각되고 있지만, 20대는 중국어(19.9%)보다 영어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림 11] 언어 경쟁력²⁶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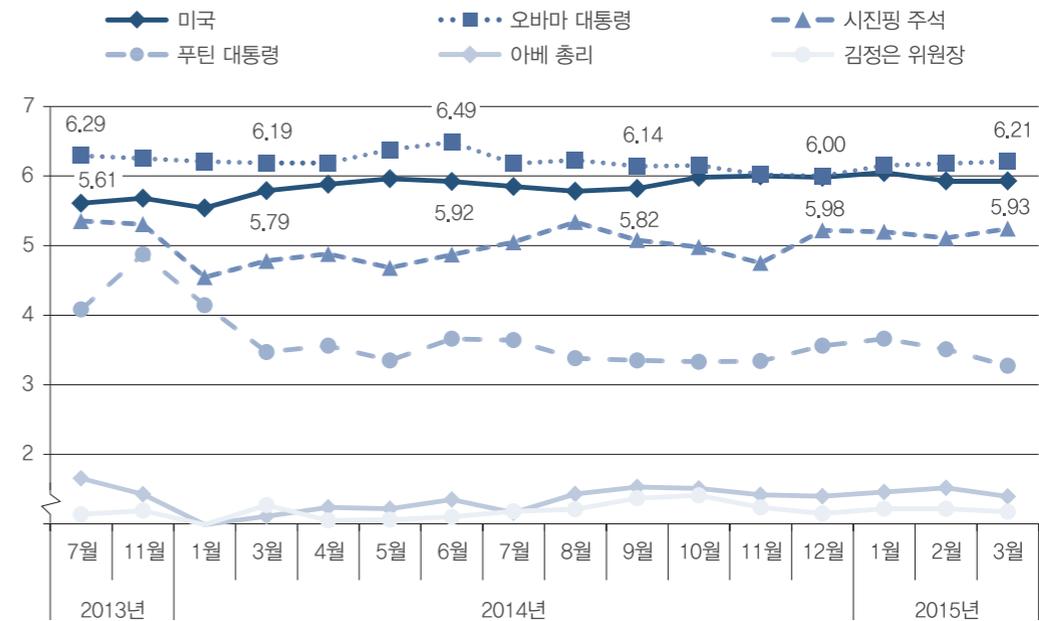
(2) 오바마 대통령의 소프트파워

미국의 강력한 소프트파워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크게 기여한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013년부터 조사한 국가수장 호감도를 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단 한번도 선두를 놓치지 않았다.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추격이 거세지만,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직후 기록한 시진핑 주석 호감도의 최대치(2013년 7월: 5.35점)

26. 아산 폴(조사기간: 2014년 5월 7~9일, 2015년 3월 11~12일).

는 지난해 12월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의 최저치 6.0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가 미국 호감도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한국인 사이에서 인기가 높게 나타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 매력에 한국인에게 큰 호소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2]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²⁷ (단위: 11점 척도)



27. 아산 폴(조사기간: 2013년 7월~2015년 3월). 국가수장 호감도는 응답자에게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아베 총리,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를 '전혀 호감 없음' 0점에서 '매우 호감 있음' 10점으로 평가하게 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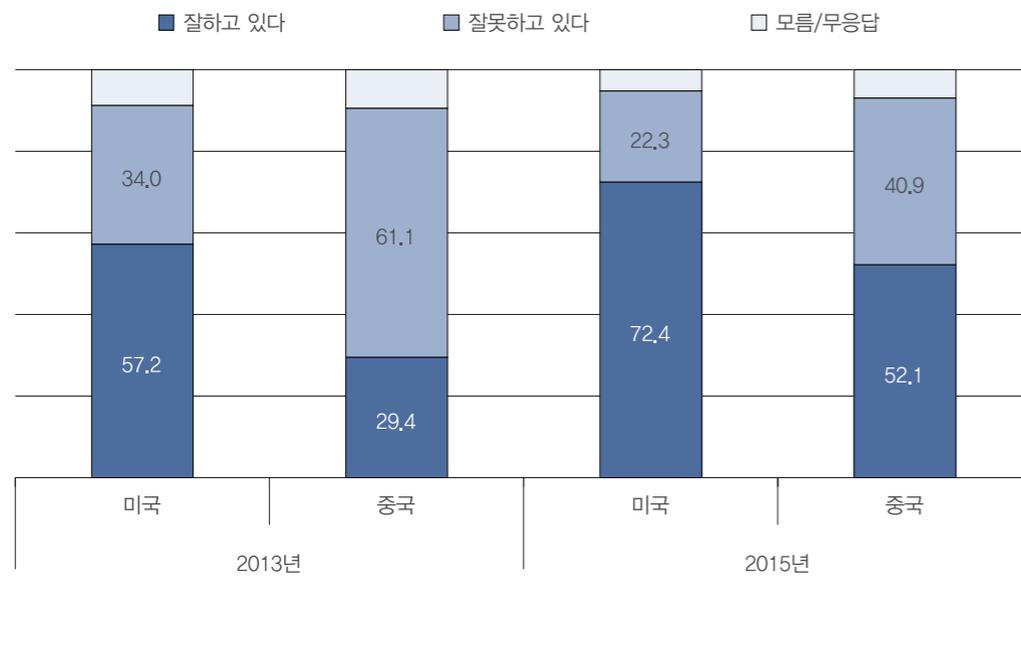
4. 한국인의 선택

(1) 국제사회 리더

한국인은 현재는 미국이 정치·경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지만, 미래에는 중국이 추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제사회 리더십(global leadership)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는 일관적이었다. 두 차례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인은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국제사회 리더로 봤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올해 72.4%로 중국의 52.1%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2013년 57.2%보다 훨씬 증가한 수치이다. 미중 양국의 격차가 2013년 27.8%에서 올해 20.3%로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인은 중국보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봤다.

[그림 13] 미중 리더십 평가²⁸ (단위: %)



28. 아산 폴(조사기간: 2013년 9월 2~4일, 2015년 3월 11~12일).

미중 양국의 리더역할에 대한 평가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표 1] 참조). 특히, 미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은 현재 진행형인 중국의 부상을 직접 경험하고 있음에도, 중국 보다 미국의 리더 역할을 긍정적으로 봤다. 20대의 79.9%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봤지만, 중국이 그렇다고 평가한 비율은 34.9%에 그쳤다. 30대도 72.8%가 미국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본 비율은 31.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30대 젊은 층은 중국의 리더십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50대, 60세 이상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인에게 중국은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대체할만한 리더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20~30대 젊은 층에서 국제사회 리더십은 하드파워뿐 아니라, 소프트파워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²⁹ 즉 한국인은 단지 강대국이란 이유뿐 아니라, 모범적이고 매력적인 국가여야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표 1] 미중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평가³⁰ (단위: %)

	미국 (A)	중국 (B)	격차 (A-B)
전체	72.4	52.1	20.3
20대	79.9	34.9	45.0
30대	72.8	31.6	41.2
40대	65.4	43.9	21.5
50대	71.6	47.8	23.8
60세 이상	73.5	44.6	28.9

29. 여기서 발견된 연령대별 격차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연령대별 전반적 태도(호감도) 차이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때문에 이는 젊은 층이 중국 보다 미국에 더 큰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도 한다.

30. 아산 폴(조사기간: 2015년 3월 11~12일).

물론 미중 양국이 국제사회 리더로 그 역할을 하는 데에는 장애요인도 존재한다. 한국인이 보기에 미국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타국문제에 군사 개입(31.5%)'이었다. 현재 중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미국 내 경제상황(24.2%)', '독단적 외교 행보(21.2%)'의 순이었다. 미국 내 정치 갈등(양극화 및 인종차별)을 선택한 응답도 9.9%였는데, 이는 퍼거슨시 사태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한국인의 28.9%가 환경오염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다음은 패권주의적 중화사상과 인권문제가 문제라는 의견이 각각 20.8%, 20.7%로 비슷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걸림돌이라는 의견은 13.8%로 그 다음이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소프트파워 부족을 지적하고 있었다. 20대는 인권문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은 비율이 29.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중국이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본 것이다. 젊은 층은 국제사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군사력뿐 아니라, 한국이 따를만한 모범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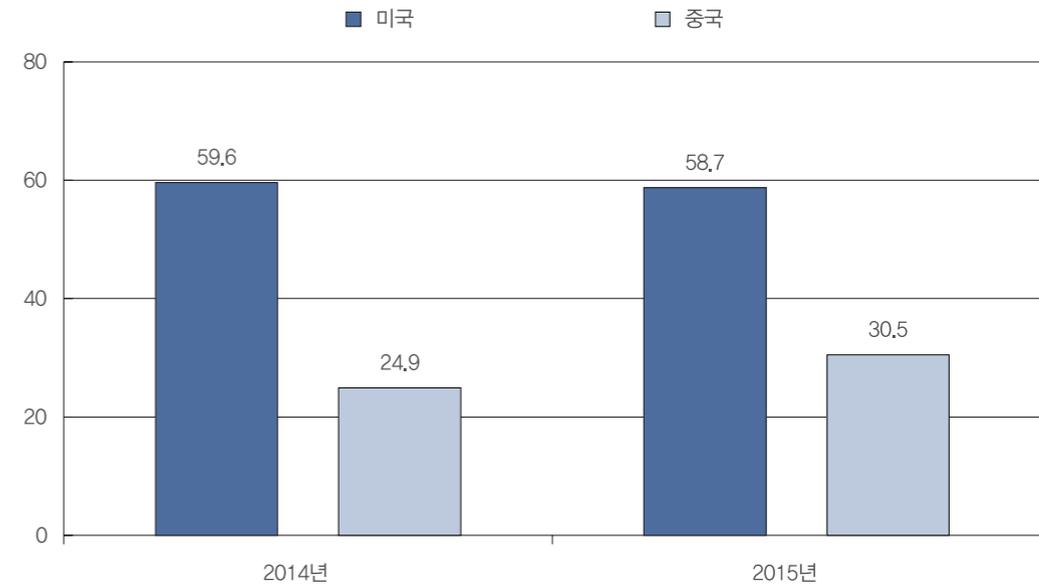
(2) 한국의 협력 파트너

미국이 건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중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고, 미국은 일본과 삼각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동북아 내 미중 양국간 경쟁이 격화될수록 이들로부터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가 지속된다면 어느 나라와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미국을 선택한 비율은 올해 58.7%로 중국(30.5%)에 비해 높았다. 중국을 선택한 한국인이 지난해 24.9%에서 올해 30.5%로 약 5% 늘었지만, 미국을 파트너로 생각한 한국인이 여전히 다수였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협력관계를 강화할 대상을 선택하게 한 결과는 연령대, 이념성향별로 차이가 컸다([표 2] 참조). 먼저 연령대별 차이를 보면, 20대는 74.8%가 중국 보다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꼽았다. 반면, 중국을 선택한 비율

[그림 14] 한국의 협력 파트너³¹⁾ (단위: %)



은 21.2%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60세 이상도 68.7%가 미국, 18.0%가 중국을 꼽으며 큰 차이를 보였다. 30대(52.8%), 50대(55.6%)는 절반 이상이 미국을 선택했고, 중국을 선택한 한국인은 30%대였다. 40대에서는 유일하게 미국보다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40대의 진보적 성향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이념성향을 구분한 분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인의 미중에 대한 선호는 이념성향별로 엇갈렸다. 전반적으로 중국보다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지만, 보수는 '미국', 진보는 '중국'이라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보수는 65.4%가 미국을 선택했고, 진보는 42.1%가 중국을 선택했다. 보수층에서는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중국을 선택한 비율보다 39.5%나 높게 나타나며, 보수층의 미국 선호가 더 분명했다. 중도는 미국 56.8%, 중국 31.7%였다.

31. 아산 폴(조사기간: 2014년 7월 4~6일, 2015년 3월 11~12일).

[표 2] 연령대 및 이념성향별 한국의 협력 파트너³² (단위: %)

		미국 (A)	중국 (B)	격차 (A-B)
전체		58.7	30.5	28.2
연령대	20대	74.8	21.2	53.6
	30대	52.8	37.3	15.5
	40대	42.9	44.1	-1.2
	50대	55.6	31.7	23.9
	60세 이상	68.7	18.0	50.7
이념성향	진보	49.2	42.1	7.1
	중도	56.8	31.7	25.1
	보수	65.4	25.9	39.5

앞서 살펴본 대로 한국인은 경제에서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있었다.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한 것도 이와 일치한다. 그럼에도, 한국인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두루 갖춘 미국을 협력관계 강화대상으로 지목했다.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만, 미국이 상당기간 패권을 유지할 것으로 본 것이다. 미국과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판단은 이러한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겠다.

나가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 동안 미국의 영향력이 컸고, 독립 이후 양국이 역사의 궤를 함께 해온 만큼 한국인은 주변국 중 미국을 가장 선호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가 개선되며 한국인 사이 중국 호감도가 상승했지만, 한국인의 미국 선호는 분명했다.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미중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인은 미국이 정치·경제 모두에서 현재까지는 중국에 앞선다고 생각했다. 물론 앞으로 경제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앞서고, 정치에서도 미국을 많이 따라잡을 것이라고 봤지만, 한국인은 미국을 국제사회 리더로 봤다.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미국이 리더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 한국인은 과거보다 오히려 늘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동맹을 유지해 온 미국이 앞으로도 국제사회 리더로서 그 역할을 잘 해주길 바라는 한국인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누리는 부동의 국제사회 리더십 뒤에는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 사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한국인은 미국 문화의 확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또 영어의 중요성은 중국어를 압도했다. 이 결과는 중국에게 경제력만으로는 국제사회 리더는 물론이고 지역 내 패권국가로 자리잡기도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경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지역국가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게 '소프트파워 구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더 주목할 점은 미국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여론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안보 보수 세력이라 칭해지는 한국의 20대는 중국보다는 미국을, 중국어보다는 영어를, 중국 문화보다는 미국 문화를, 중국의 리더십보다는 미국의 리더십을 매우 선호했다. 물론 미국이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가지는 위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청소년기부터 세계화와 국제사회 속의 한국을 경험한 젊은 층에게 중국은 아직 인권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사회였다. 이들은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정치력에 의한 국제사회 영향력 변화는 수용하면서도, 국제규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의 국내 사회환경과 인권문제를 들며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동북아 내에서의 패권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미국의 쇠퇴와 함께 중국의 부상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은 여전히 건재한 미국을 선택하고 있었다. 아직 미국은 한국인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국가였다.

32. 아산 폴(조사기간: 2015년 3월 11~12일).

부록

아산연례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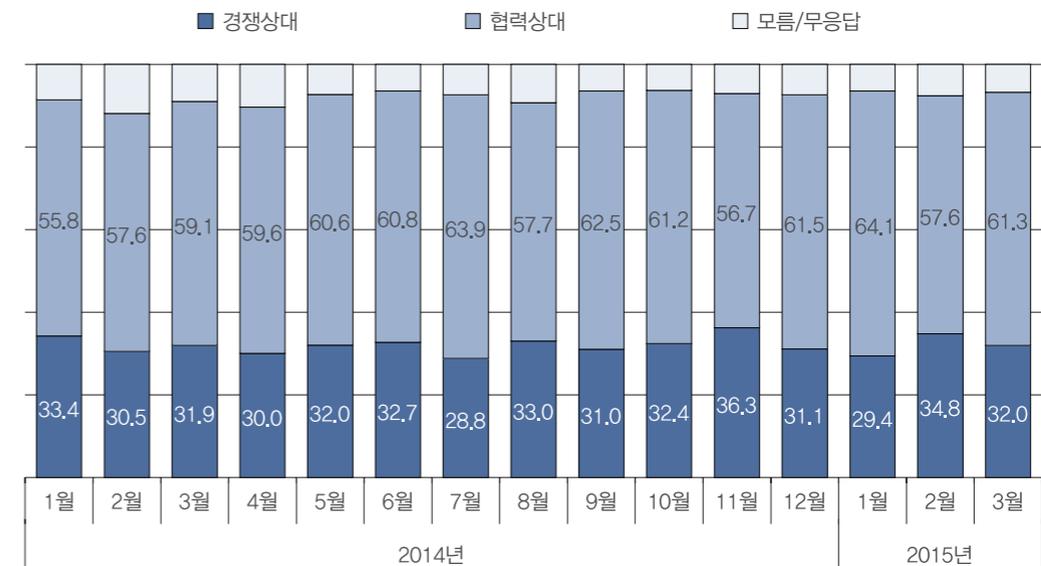
2010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19% 포인트 조사방법: 개별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년 8월 16일~9월 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1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19% 포인트 조사방법: MMS(Mixed-Mode Survey)-전화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11년 8월 26일~10월 4일 실사기관: 엠브레인
2012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2년 9월 24일~11월 1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3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3년 9월 4일~9월 2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4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4년 9월 1일~9월 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	---

아산 폴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보고서 하단의 각주 참고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부록 그림 1] 한중관계 인식 (단위: %)



ASAN
REPORT

강대국의 조건 한국인의 대미(對美) 인식

발행일 2015년 4월

지은이 김지윤, 강충구, 이지형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110-062)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76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102-7 93300 비매품



9 791155 701027 93300
비매품
ISBN 979-11-5570-102-7